

전라선 '10분 단축' 이 고속화?...전남도 "30분 이상 단축을"

정부 전라선 예타 전격 보류 도, 예산 규모 늘려 직선화 요청 2시간 생활권 구축 관철해야

전라선 공사 규모를 두고 전남도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일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의 진행을 전격 보류했다. 전남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라선 고속화'는 전북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정비·개선하는데 그쳐 10분 단축 효과밖에 없으며 30분 이상 단축되는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

전남도는 이날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0분 이상 단축되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반영을 통한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전라선 고속화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2시간 55분 소요되는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는 "낙후된 전라선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사업비 3조원 규모의 고속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올해 2월 국토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예타 대상사업 계획에는 사업비가 1조원 대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금까지 대통령 민생토론회,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용산-여수 간 30분 이상 단축되는 고속철도 노선 추진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정부는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계획대로 예타 신청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전남도는 전라선 주변 시·군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당선인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라선 고속화 예타 신청을 철회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신 3조357억원을 투입해 굴곡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전북 구간 대부분을 개량해 호남 내륙에서 남동권 해안을 연결하는 고속 대량수송 체계를 구축, 서울 용산에서 여수 간을 34분 단축하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와 관련 "30분 이상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직선화를 관철해 명실상부한 고속철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과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등 인접 6개 시·군 자치단체장 등이 2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인접 시군 상생회의'에 참석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전남 6개 시군 '빛고을 광역경제권 시대' 연다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광역철도·문화관광 개발 등 협력

광주시와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등 7개 자치단체가 '빛고을 광역경제권 시대'를 연다.

광주시는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빛고을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 이상의 함평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한중 장성군수, 안상현 나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및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광역경제권을 구

축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통근 통학인구만 연 6만5000여명이다. 반경 30km 이내 위치한 반나절 생활권으로, 주거와 일자리, 문화소비, 쇼핑 등 공동생활권이 형성되고 광역경제권이 구축된다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침체한 도시 활력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분산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산업 생태계 구축 ▲단일생활권을 위한 광역도

로 및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 ▲즐거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연산강 맑은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이다.

광주시와 인접 시군은 이날 만남에서 추가적인 논의 사항으로 건의된 정사시설 이용료 감면, 동북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광주 삼도-함평 나산 광역도로, 철도연구개발특구 진입로 개설, 장성 로컬푸드 2호점 개장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또 현안에 따라 수시 회의를 개최해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 '나주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착공

422억원 투입...2025년 완공 예정 전시실·수장고·체험시설 등 조성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착공식이 2일 나주 공산면 박물관 건립 부지에서 열렸다. 전남도는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을 의향 전남의 상징이자 대표 관광자원으로, 오는 2025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착공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서동욱 남도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윤병태 나주시장, 의병 관련 단체장, 의병장 후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은 민선 7기 김영록 도지사 취임 이후 2019년 2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3·1운동 정신을 기리며 임진왜란 전후 의병 활동뿐 아니라 한반도 의병 투쟁도 함께 조명하자'는 의미로 추진됐다.

총사업비 422억원의 예산을 들여 2만236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 연면적 6994㎡로 전시실, 수장고, 연구실,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또 전시관에 전시할 의병 유물은 지금까지 2943점을 수집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병 유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박물관 건립을 통해 국가의 위기마다 수많은 우국지사를 배출해 온 '의향(義鄉) 전남'을 알리고, 이를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이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의향 전남'을 상징하는 역사문화 공간이자, 대한민국 대표 호국 역사교육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나주시와 함께 남도의병역사박물관과 연산강 개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나주를 남해안 관광 대표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새롭게 변화될 24개 '광주 도시공원' 공개

17일까지 시청 1층서 전시

광주시는 "새롭게 변화될 '광주 도시공원'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꿀잼 공원도시 광주'를 주제로 시청 1층 시민홀에서 17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월산·신촌·방림·양산공원 등 재정공원 15곳과 중앙공원1·2지구, 마루·중의·일곡공원 등 민간공원 10곳의 면적·규모·현황 등 기본 정보, 공원조감도

등이 전시돼 있다.

광주시는 또 24개 명품공원의 모습과 관련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2017년부터 공원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 시행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시민의 삶과 힐링의 장소를 지키기 위해 자체 예산 4867억원, 민간자본 2조895억원 등 총 2조5762억원을 투입해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6곳 적발

중대위반 11곳 19명 검찰 송치

광주시는 "시민의 생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6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날림공사장 등 민생침해 우려사업장 72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여부 등을 점검 단속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대기 중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

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 여부 등이었다.

광주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중대 위반 사항이 드러난 11곳은 광주시 사회재난과에서 자체 수사해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근중 광주시 사회재난과장은 "생활권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립수목원, 야생화 사진전시회 개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31일까지 분홍비늘꽃·대성쓴풀 등 40점 전시

광주시립수목원관리사무소는 오는 31일까지 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광주시립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우리나라 야생화 사진 전시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전시회'로, 국·공·사립수목원의 동반성장 및 수목원·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부터 분홍비늘꽃, 대성쓴풀 등과 같은 희귀식물 등 국내에서 자생하는 야생화 사진 40점을 만나볼 수 있다. 서명하 광주시립수목원관리소장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쉽게 지나쳐 온 우리나라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식물자원 콘텐츠를 활용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0일 개원한 광주시립수목원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유휴부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숲 해설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주 관 장성군축제위원회
주 최 장성군 Jangseong

제23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성꽃길축제

장성 황룡강변 2024. 5. 24.(금) ~ 5. 26.(일)

장성 뮤직페스티벌 5. 25.(토)
나들이 5. 27.(월) ~ 6. 2.(일)